



미래적금vs도약계좌
청년금융상품
선택 기로
08

metro®

Life

유통 매장
예술공간으로
아트테인먼트 열풍
L2



“제주 바다와 노을 품은 공간서 ‘나만의 시간’ 선물하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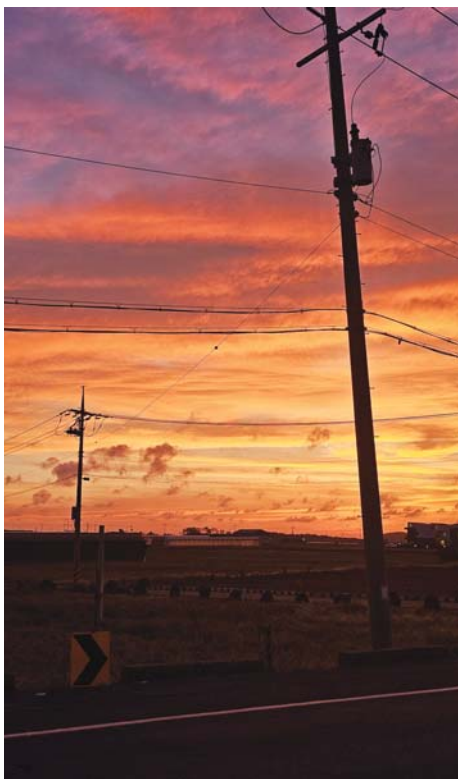
‘카페리나’ 손 휘 연 대표

제주의 서쪽 끝 고산 마을은 협재나 애월처럼 카페가 물려 있지 않다. 풍력 발전기가 늘어선 고산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해 질 무렵 바다와 하늘이 붉게 물드는 장면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이 한적한 풍경 속에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작은 공간이 있다. 바로 작은 카페 ‘카페리나’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손휘연 대표는 제주에 정착한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자 병원 동행과 돌봄을 위해 제주를 오가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손대표는 생활 근거지를 제주로 옮겨야 했다. 손 대표는 “부모님이 제주로 내려오신 지 10년쯤 됐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며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때가 많아 서울 생활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집 근처 시골집을 임대, 여성 전용 숙소와 카페를 함께 열었다. 그는 “커피를 워낙 좋아했고 작업 공간을 겸할 수 있는 업종이어서 자격증 수업을 듣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관광지와 거리가 먼 고산은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었지만 그는 직접 발로 뛰며 메뉴와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 인테리어 자재를 고르는 일부터 카페 동선을 잡는 작업까지 대부분 손 대표가 직접 계획했다.



카페리나에서 바라본 노을 모습.

◆반려묘 이름에서 시작된 카페리나

카페리나라는 이름은 고등학교 시절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첫 반려묘 ‘리나’의 이름을 따다. 손 대표는 “리나는 강아지처럼 애교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울면 다가와 눈물을 핏아주던 다정한 고양이였다”며 “리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로 오기 직전 세상을 떠난 리나를 기리기 위해 간판에 이름을 새겼다.

지금 카페 안에는 ‘가온’과 ‘나온’이라는 두 마리 고양이와 함께한다. 그는 “사람을 경계해 잘 나오진 않지만, 운이 좋으면 창가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마주칠 수 있다”고 했다.

카페 내부는 나무 질감과 흰색을 중심으로 단정하게 꾸며졌다. 이전에는 소품샵으로 쓰이던 공간의 기본 틀만 살리고, 벽면 색상부터 테이블 간격, 조명 배치까지 세세한 부분은 손 대표가 어머니와 함께 하나하나 상의하며 결정했다. 그는 카페가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보다 오래 머물러도 편안해야 한다”고 판단해 어머니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내 가운데는 테이블 간격을 넉넉히 두어 여유가 느껴지고, 특히 창가 자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머물 수 있도록 가장 공을 들인 자리다. 창가에 앉으면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여행객과 장을 보러 가는 마을 어르신들이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손 대표는 “날이 맑으면 반짝이는 바다와 주변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이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곳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한결 느리게 흐른다”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 잔을 두 손에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이 여행의 진짜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이 책을 읽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쉬어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고산 노을을 담은 시그니처 메뉴

카페리나의 대표 메뉴는 ‘고산노을’이다. 라즈베리 시럽과 한라봉청을 층으로 쌓아 보라색·노란색·붉은색이 유리컵 속에서 서서히 번지도록 만들었다. 손 대표는 “고산의 노을은 제주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라 그 색을 담고 싶었다”며 “농도와 색감을 맞추기 위해 수십 번 실패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색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도 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일 농축액 비율을 수십 차례 조절했고, 제주산 과일을 사용하기 위해 제철마다 공급처를 직접 확인한다.

디저트 ‘삼색고양이쿠키’도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쿠키 위 고양이 표정은 식용 잉크로 하나하나 직접 그려 넣는다. “손님들이 유리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그



손휘연 카페리나 대표와 카페리나 내부 모습. 제주 서쪽 끝 고산마을, 관광지과 거리가 먼 한적한 곳에 문을 연 카페리나는 인테리어 자재 선택부터 테이블 배치와 동선 설계까지 손휘연 대표가 직접 계획하며 만든 공간이다.

“

부모님 부양 위해 제주로 거쳐 옮겨 고산 시골집 개조해 카페·숙소 오픈

인테리어 자재, 동선까지 직접 설계 제주바다·노을 한눈에 보이는 창가도

고산 풍경 담은 시그니처 메뉴 개발 등 신선한 재료로 카페만의 특색 살려

화려하진 않아도 편안한 분위기 조성 지친 일상 속 떠올리게 되는 공간 되길

의 설명이다.

외진 곳에 위치해 성수기에도 북적이지 않지만, 그는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원두나 과일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맛에서 티가 난다”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걸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의 고집은 손님을 다시 불러온다. 1년 전 자전거 여행 중 마셨던 한라봉에이드를 잊지 못해 가족을 데리고 다시 찾은 손님,

한 달 살이를 마치고 1년 만에 돌아온 단골이 그 증거다. 손 대표는 “단골 손님이 ‘작년에 너무 맛있어서 가족을 데리고 왔다’고 말할 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일부 손님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메뉴 변화를 확인하러 찾기도 한다.

◆고산의 계절이 주는 가치

손 대표는 제주 서쪽 끝 고산의 가을을 특히 추천한다. “10월과 11월에는 억새가 흐드러지고 바람이 선선하며 하늘이 높아진다”며 “여름 성수기가 끝난 뒤 관광객이 빠진 해안도로에서 느끼는 바람은 정말 특별하다”는 설명이다.

카페를 나서면 곧바로 고산 해안도로의 거대한 풍차가 돌아가고, 조금만 걸으면 수월봉·차귀도·용수리에서 탁트인 바다와 노을을 만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모슬포로 향하는 해안도로에서 야생 돌고래 무리까지 볼 수도 있다.

손 대표는 “유명하고 화려하진 않아도 오롯이 ‘나’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며 “바람을 맞고 노을을 바라보며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일상에 지칠 때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뮤지컬 ‘라이프 오브 파이’, 韓 초연 앞두고 스틸컷 공개 /사진 뉴시스
▲‘수컷없이’ 암컷 도마뱀 혼자 낳은 알, 8마리 부화…학계 “희귀 사례”

▲국립한글박물관, 부산서 ‘근대한글연구소’ 순회전
▲‘강행→취소→재개’ 하루 만에 반복한 KOVO…코보컵, 개막부터 혼란 ↑

▲손흥민, 새너제이전 ‘52초’ 버락골…MLS 2호 골 폭발
▲김하성, 마지막 타석에서 1타점 적시타…애틀랜타는 4연패